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와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

혁명사상 만세!

로동신문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기관지
제60호 [무계 제25569호] 주제 106 (2017)년 3월 1일 (수요일)

당의 령도따라 내 나라,

내 조국을 더욱 부강하게 하기

위해 힘차게 일해나가자!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께서 조선인민군 제966대련합부대 지휘부를 시찰하시였다



조선로동당 위원장이시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무위원회 위원장이시며 조선인민군 최고사령관이신 우리 당과 국가, 군대의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께서 조선인민군 제966대련합부대 지휘부를 시찰하시였다.

조선인민군 총정치국장인 조선인민군 차수 황병서동지, 조선인민군 총참모부 제1부총참모장 겸 작전총국장인 북군상장 리영길동지가 동행하였다.

최고사령관기와 공화국기가 펄럭 휘날리고있는 대련합부대 지휘부에는 위대한 김정은동지를 수반으로 하는 당중앙위원회를 목숨바쳐 사수해갈 무철한 수령결사옹위정신이 용암마냥 끓어번지고있었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께서 대련합부대의 지휘관들이 맞이하였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께서 지휘부에 도착하시자 강병들이 터치는 《만세!》의 환호성이 천지를 진감하며 맑고 푸른 조국의 하늘가에 모 베아리 처갔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께서는 열광의 환호를 올리는 장병들에게 따듯이 손을 저어 답례하시고 그들과 함께 기념사진을 찍으시였다.

기념촬영이 끝나자 부대장병들은 설사 하늘땅이 뒤집히고 세상천지가 열백번 변한다 해도 추호의 흔들림없이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님을 믿고 따르며 한몸이 그대로 충이 되고 목란이 되어 우리의 운명이요 미래이신 최고령도자동지를 결사보위해갈 총정의 마음을 담아 《김정은 결사옹위!》

의 구호를 목청껏 불렀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께서는 위대한 수령님과 위대한 장군님의 현지교시란, 위대한 장군님의 진필비, 혁명시적관, 연혁실을 돌아보시였다.

위대한 수령님과 위대한 장군님의 권리해안의 작전적예지와 현명한 령도에 의하여 1967년 9월 1일에 조직된 대련합부대는 우리 수령님께서 8차례, 우리 장군님께서 33차례,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께서 11차례나 시찰하신 영광넉친 부대이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께서는 위대한 수령님과 위대한 장군님께서 대련합부대의 싸움준비와 전투력강화를 위해 바치신 헌신과 로고가 역력히 어리여있는 귀중한 사적물들과 사적자료들을 보시면서 승리와 영광의 한길을 걸어온 부대의 발전정정을 감회깊이 회고하시였다.

위대한 수령님과 위대한 장군님의 손길아래 무적필승의 전투대로로 자라난 대련합부대는 지난 기간 우리 당의 선군혁명명도를 총직하게 받들어왔으며 사회주의조국을 믿음직하게 보위하기 위한 투쟁과 당이 맡겨준 사회주의대전설전투장마다에서 자랑찬 위훈을 세움으로써 수많은 공화국영웅, 로력영웅들을 배출하였다고 말씀하시였다.

력대 지휘성원들의 사진들을 하나하나 보아주시며 대련합부대 지휘관들속에 항일혁명투사들이 정말 많았다고, 이것만 보어도 위대한 수령님과 위대한 장군님께서 이곳 부대를 얼마나 중시하시였는가를 잘 알수 있다고 하시였다.

2011년 12월 13일 위대한 장군님께서 이곳 부대가 진행하는 훈련을 보아주시는 사진문헌에서 오래도록 눈길을 떼지 못하시며 그날은 우리 장군님의 위대한 생애의 마지막 4일전이었다고, 부대장병들은 언제나 이날을 잊지 말아야 한다고 절절히 당부하시였다.

혁명사적관과 연혁실을 인민군적으로 제일 잘 꾸린것 같다고 치하시면서 군인들속에서 교양사업을 실속있게 짜고들어 그들이 위대한 수령님과 위대한 장군님의 령도자육이 뜨겁게 어리여있는 부대에서 군사부무를 하는 남다른 긍지와 자부심을 안고 싸움준비와 전투력강화의 자랑찬 성과로 우리 수령님과 우리 장군님의 불멸의 업적을 빛내여가게 하여야 한다고 말씀하시였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께서는 작전지휘실에서 대련합부대장으로부터 방어작전계획보고를 청취하시였으며 군사연구실, 시격관, 교환군무장을 비롯한 여러곳을 돌아보시면서 훈련실태와 전투동원준비정형을 구체적으로 료해하시였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께서는 부대장병들이 침략전쟁연습에 광분하고있는 미제와 남조선괴뢰역적파당의 책동을 예리하게 주시하면서 원수들이 감히 덤벼들면 천검, 만경의 성새가 되고 방탄벽이 되어 혁명의 수뇌부를 믿음직하게 보위해갈 밀적의 의지를 안고 싸움준비완성에 비약의 박차를 가해가고있는데 대하여 커다란 만족을

표시하시였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께서는 부대에서 군사연구실을 비롯한 훈련기점들을 훌륭히 꾸려놓았을뿐만아니라 올해 훈련의 해로 정해진 당의 의도에 맞게 훈련혁명 5대방침편철을 위한 투쟁을 힘있게 벌림으로써 지휘관, 참모부 일군들에게 우리 당의 군사전략전술사상과 주제전법을 깊이 체득시키고 그것을 현대전의 요구와 양상, 적들의 변화되는 전쟁수행방식에 맞게 능숙히 활용할수 있도록 훈련을 짜고들고있는것은 좋은 일이라고 말씀하시였다.

지휘관, 참모부 일군들이 당이 새롭게 밝혀준 군사전략전술사상과 전법에 립각하여 부대의 두뇌로서의 작전전술적안목과 창조적능력, 배짱과 담력을 완벽하게 소유한 유능한 작전가, 싸움군지휘관으로 준비하고있으며 모든 군인들을 맡겨진 임무를 자립적으로, 능동적으로 수행해나갈수 있는 일당백의 맹장들로 역세게 준비시키고있는데 대하여 치하시였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께서는 대련합부대가 맡고있는 임무가 대단히 중요하다고 하시면서 당이 제시한 군력강화의 4대전략적로선과 3대과업을 틀어쥐고 부대장병들을 사상과 신념, 도덕의 강자로 역세게 키울데 대한 문제, 유사시 적들의 그 어떤 침공도 일격에 격파분쇄할수 있도록 방어작전지대를 난공불락의 요새, 불퇴의 선으로 만들데 대한 문제, 불의에 공중감속하는 적들을 무자비하게 타격소멸할수 있는 대책들을 빠짐없이 세워

놓을데 대한 문제, 새로 장안제작한 전투기술기재들을 더욱 완성할데 대한 문제 등 부대의 싸움준비와 전투력을 백방으로 강화하는데서 지침으로 되는 강령적인 과업들을 제시하시였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께서는 식당, 수영장, 목욕탕 등 여러곳을 돌아보시면서 군인들의 생활을 친어머님심정으로 따듯이 보살펴주시였다.

식당의 밥먹는칸은도보장대책을 잘 세움으로써 군인들이 뜨끈한 곳에서 식사를 할수 있게 되었다고 기뻐하시였고 감격에 겨워 눈물을 흘리는 취사원들의 손을 입일이 잡아주시며 어머니심정으로 군인들에게 여러가지 음식들을 다양하게 잘 배덕이라고 이르시였다.

군인 일인당 매일 250g씩 먹일수 있도록 지난해 풍농사를 잘했다고 하시였고 행장고에 산더미같이 쌓여있는 물고기와 주렁주렁 매달려있는 고기를 보시고 이곳 부대에 살림살이를 잘하는 후방일군들이 있다고 못내 기뻐하시였다.

수영장과 목욕탕을 잘 꾸려놓았는데 설계도 잘하고 시공도 흠잡을데가 없다고 하시면서 최근에 당에서 맡겨준 건설대상물을 보란듯이 일떠세운 부대의 일습씨가 다르다고 하시였다.

부대군인들의 문화정서생활에 적극 리용하고있는 문화기재들도 자체로 생산하고있는데 질이 높다고, 다른 부대들에게도 공평해주고있는것은 좋은 일이라고 하시면서 해당 단위 일군들의 수고를 헤아려주시였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께서 조선인민군 제966대련합부대 지휘부를 시찰하시였다



위대한 김정은동지를 수반으로 하는 광중앙위원회를 복습으로 사수하자!

1 번 에서 계속

넓고 시원한 운동장과 규모있게
일떠선 지휘부청사들을 바라보시며
멋있다고, 마음에 든다고, 부대를
돌아보니 정신이 맑아진다고 하시
면서 지휘관들과 병사들이 합심하
여 강철같은 군기를 확립하고 최정

예혁명강군의 전투적기상과 면모를
더욱 튼튼히 갖추어오시며 창립
50돐이 되는 올해에 오중총7면대
칭호를 반드시 정취하라고 말씀하시
였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께서는 이날
군인회관에서 대련합부대에속전대의
공연을 관람하시였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께서는
대련합부대에속전대원들이 담질
작을 민감하게 반영한 작품들을
가지고 훌륭한 공연을 진행한데 대
하여 만족을 표시하시고 공연활동
에서 나서는 귀중한 가르치심을
주시였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께서는 대련
합부대가 지키고있는 조소들에 대해
마음을 놓는다고 하시면서 부대의 전체
장병들이 만단의 전투동원태세를 빈틈
없이 갖추어오시며 사회주의조국을 총대
로 굳건히 수호해가리라는 기대와 확신
을 표명하시였다.
조선인민군 제966대련합부대의
장병들은 부대에 찾아오시여 무적의

합부대가 지키고있는 조소들에 대해
마음을 놓는다고 하시면서 부대의 전체
장병들이 만단의 전투동원태세를 빈틈
없이 갖추어오시며 사회주의조국을 총대
로 굳건히 수호해가리라는 기대와 확신
을 표명하시였다.
조선인민군 제966대련합부대의
장병들은 부대에 찾아오시여 무적의

당력과 지력을 안겨주시고 당중앙드락울
지켜선 문전보초병이라는 최상최대의 믿음
을 안겨주시는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에
대한 고마움에 굶주리는 걱정을 누르지
못하면서 최고령도자동지께서 주신
전투명령을 결사관철할 총정의 명세를
다지였다.
본사정치보도반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의 불후의 고전적로작을 도미니카에서 단행본으로 출판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의 위대한 선군혁명사상과 업적을 깊이 이 도미니카 열미스출판사에서 2월
불후의 고전적로작 《김정일동지의 빛내어나가자》를 광명성절에 즈음하 12일 단행본으로 출판하였다.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에서 몽골인민당 중앙위원회에 축전을 보내였다

올란바토르
몽골인민당 중앙위원회 앞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는 몽골인민당장기 96돐에 즈음하여 귀 당중앙위원회와 전체 당원들에게 열렬한 축하와
따뜻한 인사를 보냈습니다.
몽골인민당은 나라의 자주적발전과 번영을 이룩하기 위한 사업에서 커다란 성과를 이룩하고있습니다.
우리는 이 기회에 오랜 역사와 전통을 가지고있는 우리 두 당사이의 친선협조관계가 자주, 평화, 친선의 피범에
따라 앞으로 더욱 확대발전되리라는 확신을 표명하면서 귀 당의 활동에서 보다 큰 성과가 있을것을 축원합니다.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정 령

제1576호 주체106(2017)년 2월 28일 평 양

혁명적준법기풍을 확립하는데 이바지한 단위들에 모범준법단위칭호를 수여함에 대하여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는 우리 당의 선군혁명명도를 높이 만들고 사회주의법무생활
을 강화하여 온 사회에 혁명적준법기풍을 확립하고 국가사회제도를 공고발전시키는데 적극 이바지한 다음의 단위
들에 모범준법단위칭호를 수여한다.

- | | |
|-----------------|------------------|
| 김책공업종합대학 금속공학부 | 해주리관 |
| 평양기계종합대학 정보공학부 | 은골군방곡수급사업소 |
| 평양기계종합대학 사회과학부 | 승로군승배전소 |
| 류경진실관리국 건설장비관리소 | 목산군 사현협동농장 파수작업반 |
| 출판지도국 인쇄화학공장 | 강계제1중학교 |
| 은하지도국 은하기술준비소 | 함북일보사 인쇄공장 김책분공장 |
| 정주은하미복공장 | 명간군의악용관피소 |
| 승로리세멘트공장 내회원과직장 | 김책시 호룡협동농장 제1작업반 |
| 비전관 배전소학교 | 명간역 |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정 령

사 설 민족자주의 기치높이 거족적통일운동의 전성기를 열어나가자

오늘 우리는 주체조선의 무적막강
한 국력이 힘있게 파시되고 민족의
자주통일기운이 날로 높아지고있는
적동적인 환경에서 역사적인 3.1
인민봉기 98돐을 맞이하고있다.
3.1인민봉기는 건악한 일제의 식
민지통치를 반대하고 자주독립을 이
룩하기 위한 거족적인 반일투쟁으로
조선 민족해방투쟁사에 뚜렷한 자욱
을 새기였다.
지난 세기초 우리 나라를 무력으로
강점한 일제는 중세기적인 식민지와
쌍용치를 실시하면서 조선민족의 자
주권과 존엄을 무참히 짓밟고 삼천리
강토를 피바다에 잠겼었다. 일제의
아만적인 《무단통치》하에서 상가집
계만도 못한 수모와 학대를 받으며
살아오던 겨레의 앓이고생인 원한과
분노는 마침내 1919년 3월 1일 전
민족적인 반일투쟁으로 폭발하였다.
3.1인민봉기는 《조선독립 만세!》, 《일
본인과 일본군대는 불리가따!》 등
의 구호를 힘차게 외치며 일제군경
의 용감탄압에 굴함없이 맞서 싸웠
다. 3.1인민봉기는 조선민족은 걸
코 남의 노예로 살기를 원치 않으며
나라의 독립을 위해서는 그 어떤 희
생도 두려워하지 않는 불굴의 기개
와 열렬한 애국정신을 가진 민족이
라는것을 온 세상에 시위하였다.
3.1인민봉기는 발흥까지 무장한 위
력자들과는 무장으로 맞서 싸워야 하
며 민족의 자주권은 오직 총대포탄 지
킬수 있다는 피의 교훈도 남겼다.
우리 인민은 주체의 태양이신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와 위대한 영도자
김정일동지를 높이 모심으로 자주
적운동기개의 새시대를 맞이할수 있
였다. 강도 일제에게 주권과 국토, 재
부를 쟁고리 강일당하고 망국노의 운
명에 처하였던 우리 인민이 민족제생
의 새불을 맞이할수 있는것도, 세계
《희망》을 뽐내던 미래와 맞서 조국의
본업을 영예롭게 수호하고 명동조선
의 위용을 높이 떨칠수 있었던것도 총대
를 자주권수호의 보검으로 불어치고
반제민족해방투쟁을 승리로 이끄신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현명 한

영도가 있었기때문이다. 위대한 영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선군의 기치를 더
욱 높이 추어오시고 제국주의의 반사
회주의, 반공화국압살책동을 단호히
저지시키시며 조국통일과 민족번영
의 혼돈한 도태를 마련해주시였다.
위대한 수령님들께서 총대로 개척
하고 이끌어오신 민족자주위원회는
오늘 때두산이 남은 또 한분의 걸출한
선군명장이신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를 의하여 최후승리의 머명
을 맞이하고있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위대한 수령님들의 선군혁명사상과
로선을 빛내게 계승해나가기에 우
리 조국은 그 어떤 강적도 넘볼수 없
는 동방의 령장국, 군사강국으로 위용
떨치고있다. 최근에 성공적으로 진행
된 지상대지상중장거리비탄막탄도탄
《북극성-2》형시험발사는 해외의
은 겨레에게 조선민족으로서의 긍지
와 자부심을 더욱 북돋아주고 자주통
일의 승리를 굳건히 담보해주는 장대
한 사면이다. 지금 전제 조선민족은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의 백승의 영도
가 있는 한 삼천리강토에 통일되고
진정하는 강성국가가 반드시 일어날
것이라는 확신을 넘치지 않는다.
북과 남, 해외의 온 겨레는 애국선
열들의 불굴의 기개와 넉을 이어 내
외반통일세력의 도전과 방위책들을
저지시키고 민족최대의 숙원인 조국통
일업무를 성취하기 위한 투쟁에 한
사람같이 떨쳐나서야 한다.
경 애 하 는 최 고 령 도 자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올래에 우리는 온 민족이 힘을
합쳐 자주통일대 대령으로 열어나
가야 합니다.》
3.1인민봉기가 일어난 때로부터 한
세기가 가까워오지만 우리 민족은 어찌
도 완전한 자주권을 실현하지 못하고있
다. 미국과 그에 추종하는 남조선외
세력의 반통일대결책들은 민족의 화해
와 단결, 조국통일의 엄중한 장애이다.
미국과 남조선외세력은 우리 공
화국의 힘찬 전진을 가로막고 반공화
국압살야망을 실현할 범죄적기도

에 우리의 정정당당한 자위적조치를
그 무슨 《경의위안》으로 꺾고들면서
반공화국제세압박과 핵전쟁도발책동
에 광분하고있다. 남조선의 반통일세
력은 북남관계개선을 바라는 온 겨레
의 지향에 역행하여 력사의 혼란한
실상을 받은 박근혜역도의 동족대결
정책을 탐습하면서 북남관계를 수습
할수 없는 과거로 몰아가고있다.
동족을 해치기 위해서라면 우리 민족
의 친년숙적인 일본의 피비린 피거리
악도 눈감아주고 제침을 끄구는 사무
라이후손들과의 군사적공모질탄도
사슴지 않고있다.
현실은 북과 남, 해외의 온 겨레가
민족자주의 기치높이 내외반통일세
력의 발악적도전을 단호히 저지시키고
조국통일의 전황적극면을 열어나가
기 위한 거족적투쟁에 파강히 떨쳐
나설것을 절박하게 요구하고있다.
만일세, 민족자주의 기치를 높이
고 외세의 지배와 간섭을 단호히
배격하여야 한다.
해외의 전제 조선민족은 세계를
이어 지속되는 미래의 남조선강국을
광장대기 위한 투쟁의 불길은 더욱
세차게 지펴올려야 한다. 침략과 전
쟁의 좌권인 미국의 대조선적대시침
략책동을 저지파탄시키며 민족문제,
통일문제에 대한 외세의 지배와 간
섭을 추호도 허용하지 말아야 한다.
침시대를 일삼으며 민족의 단합과
통일업위에 도전하는 반통일사대대
국노들에게 무자비한 침투를 안겨야
한다. 남로 로동화되는 일본반통일의
새침책동과 그에 출아나는 남조선의
친일대국세력의 위험한 준동들을 철지
히 짓물개버려야 한다.
북과 남사이의 군사적충돌을 방지
하고 긴장상태를 완화하는것은 조선
반도의 평화를 보장하고 평화통일을
이룩하기 위한 필수적전제이다.
나라의 평화와 통일을 강박하는 전제
조선민족은 내외외세력들의 복침책동
평화발책들을 저지시키기 위한 단결투
쟁의 불길을 더욱 세차게 지펴올려야
한다. 남조선당국은 우리의 자위적역
세력을 무력하고 꺾고들지 말아야 하며

보수패당의 재집권은 허용될수 없다

남조선에서 박근혜역도에 대한 탄핵심판의 시각이 박두하면서 그것을 지연시켜보려는 보수패당의 발악적인 행동도 극도에 달하고있다.

후안무치한 역도는 부정수부사건에 대한 특검수사를 안달했다고 나치배치는가 하면 극우보수정파들을 내몰아 맞붙임회까지 밀어붙이면서 무지막하게 남쫓고 있다. 한편 《자유한국당》 패거리들은 또 다시 박근혜역도의 《일시있는 피견》을 운운하면서 어떻게 하나 탄핵심판을 보면 예쁘고 지지분하게 놀아대고있다. 박근혜역도가 풀러내더라도 권력은 저들에게 그대로 남이겠지 하려는 교활한 술책이다.

탄핵당의 비호밑에 초법집회 《탈영이들의 관용》으로 불어 탄압하기 위한 보수정권내부의 파조적방기도 더욱 우심해지고있다. 이제는 탄핵정국을 뒤집어엎기 위한 때와와 앞날, 군사쿠데타까지 내놓고 선봉하는 판이다. 이것은 보수패당이 초법집회에 맞붙이려 하면서 목숨의 이빨만 사남게 갖고있다는것을 보여주고있다.

보수패당의 재집권을 노린 불순한 망풍은 분노한 초법집회에 대한 참을수 없는 유혹이도 도전이다.

남조선인민들의 대중적인 반 《정부》 초법투쟁은 남조선의 어지러운 정치정국을 갈아엎고 사회적정의와 진보를 이룩하기 위한 의로운 투쟁이다.

인민을 움직이고 인간의 자주적권리와 존엄을 짓밟는 정치가 민심의 배격을 받는 것은 누구도 망언한다. 미국의 배후종당인 보수패당이 권력을 독재하고 반역정치를 대포팅해온것으로 하여 남조선에서는 이미 오래전부터 자주적이며 민주주의적인 정치를 구현하는 문제가 인민들의 생활적인 요구로 되어왔다. 그것을 위하여 남조선에서 시민적파조투쟁을 광장내기 위한 반 《정부》 투쟁이 끊임없이 벌어져 온것이 사실이다. 그것을 밀쳐주고있다. 그러나 남조선인민들의 그 절절한 열정을 아끼지 않고 실현시켜 하고있다. 반역정치를 깨뜨리기 위한 투쟁이 계속되고있고있다.

지금 남로 로공화되는 피피보수패당의 재집권행동은 남조선 각계의 각성을 불러 일으키고있다. 박근혜역도는 이미 민심의 사형선고를 받고 산송장이 되었다. 하지만 그것으로 남조선인민들의 요구가 실현되는것이 아니다. 단일 보수패당의 재집권야망이 실현된다면 남조선인민들의 초법투쟁의 열매는 또 다시 짓밟히게 될것이다. 하지만 남조선인민들은 결코 박근혜역도와 같은 또 다른 식민주의사관군, 파조악당이 군림하여 반역정치가 되풀이되는것을 바라지 않는다. 얼마전 남조선 각계가 《박근혜역도 4년, 너희들의 세상은 끝났다.》고 웨치며 초법광장을 떨쳐나선것은 보수패당의 재집권을 절대로 용납하지 않을 그들의 투쟁의지를 특출히 보여주고있다. 그것은 너무도 웅장한것이다.

남조선인민들은 피피보수패당의 반역정치하에서는 자신들의 요구가 결코 실현될수 없다는것을 박근혜역도의 집권 4년을 통하여 뼈저리게 체험하였다.

피피보수패당은 남조선을 총체로 외세에 제쳐버리는 극악한 배국적책무로써, 박근혜역도가 권력의 자리에서 물러앉지 마시라 미국장권을 찾아가 《혈맹관계》를 맺어 놓고 이양을 떨치기 한것이란 인민들의 형제로 남조선강령 미제침략군 《유신》을 더 많이 짓밟고 전사적전통제권전환시기를 연장해달라고 애걸하는 등 전수에 용납 못할 배국행위였다. 역도는 내외의 한결같은 규탄에도 불구하고 《사드》 배치충동에 시승없이 말뚝고사선전기를 비롯하여 인민들이 반대하는 역적짓만 팔라하였다. 이러한 망풍은 남조선은 미국의 철저한 식민지로, 박근혜정권은 더욱 전사적이고 인민들을 전제 억압한 제국이 되어있고 모를 풍포와 불인속에 놓이게되었다.

이것이 어떤가. 피피보수패당은 전일 굴종행위를 일삼으면서 일제의 친인공노할 일본군성노예비행기를 몇몇의 돈을 달는 대가로 딱지화해버리고 일본군 군사정보보위까지 체결함으로써 조선민족의 백년속죄적 재침의 길을 시승없이 열어주고있다.

오늘날 남조선이 인민들의 존엄과 권리가 땅그리 짓밟히는 인간생지옥, 부정부패와 파조특세의 관우장으로 전락한것은 두말할것 없이 박근혜역도의 복은 보수정치가 가져온 필연적인 산물이다.

재법들을 끼고 인민들을 깨, 때지취급하는 보수패당의 극악한 반인민적악정으로 하여 경제와 민생은 도탄에 빠지고 부정부패와 배후배덕 등 온갖 사회악이 성행하여 온 남조선은 그야말로 사람 못살 암흑천지로 화하였다. 《박근혜, 최순실추방》을 통해 남당이 드러내놓은것이 피피패당은 저들의 비위에 거슬러오는 단체들과 인사들에 대한 요시찰행위를 작성해놓고 가지않고 탄압감살하는 《유신》특재지도 무색해 할 파조적악행을 일삼았다. 보수패당의 《총풍》소풍의 마수에 실현될수 없다는것을 박근혜역도의 집권 4년을 통하여 뼈저리게 체험하였다.

남조선인민들은 자신들의 요구가 결코 실현될수 없다는것을 박근혜역도의 집권 4년을 통하여 뼈저리게 체험하였다.

이것이 어떤가. 피피보수패당은 전일 굴종행위를 일삼으면서 일제의 친인공노할 일본군성노예비행기를 몇몇의 돈을 달는 대가로 딱지화해버리고 일본군 군사정보보위까지 체결함으로써 조선민족의 백년속죄적 재침의 길을 시승없이 열어주고있다.

오늘날 남조선이 인민들의 존엄과 권리가 땅그리 짓밟히는 인간생지옥, 부정부패와 파조특세의 관우장으로 전락한것은 두말할것 없이 박근혜역도의 복은 보수정치가 가져온 필연적인 산물이다.

재법들을 끼고 인민들을 깨, 때지취급하는 보수패당의 극악한 반인민적악정으로 하여 경제와 민생은 도탄에 빠지고 부정부패와 배후배덕 등 온갖 사회악이 성행하여 온 남조선은 그야말로 사람 못살 암흑천지로 화하였다. 《박근혜, 최순실추방》을 통해 남당이 드러내놓은것이 피피패당은 저들의 비위에 거슬러오는 단체들과 인사들에 대한 요시찰행위를 작성해놓고 가지않고 탄압감살하는 《유신》특재지도 무색해 할 파조적악행을 일삼았다. 보수패당의 《총풍》소풍의 마수에 실현될수 없다는것을 박근혜역도의 집권 4년을 통하여 뼈저리게 체험하였다.

이것이 어떤가. 피피보수패당은 전일 굴종행위를 일삼으면서 일제의 친인공노할 일본군성노예비행기를 몇몇의 돈을 달는 대가로 딱지화해버리고 일본군 군사정보보위까지 체결함으로써 조선민족의 백년속죄적 재침의 길을 시승없이 열어주고있다.

오늘날 남조선이 인민들의 존엄과 권리가 땅그리 짓밟히는 인간생지옥, 부정부패와 파조특세의 관우장으로 전락한것은 두말할것 없이 박근혜역도의 복은 보수정치가 가져온 필연적인 산물이다.

스러운 보수패당의 반역정치에 대한 끝없는 저주와 분노의 표시이다. 그들의 투쟁에 의하여 박근혜역도가 심판대에 오를 날도 멀지 않았다. 하지만 그것만으로 투쟁을 늦출수 없는 남조선인민들이다.

지금 피피보수패당은 박근혜역도의 탄핵심판을 유야무야 해치우고 재집권을 실현해보려는 총풍을 남로 로공화하고있다. 극우보수단체들이 자금을 대주어 남로 로 광범위를 맞붙임회관등에 내보내는가 하면 박근혜역도를 위한 초법집회를 《복용호집단의 <정권> 탈취기도》로 매도하면서 인민들의 투쟁을 총풍로 탄압감살해치우려는 파조적기도 드러내고있다. 이러한 속에서 보수패거리들은 그 무슨 《대통령》 선거권속 싸내려요》라는것까지 내몰면서 어중이떠중이들을 끌어모아 탄핵정국을 뒤집어엎으려고 피하고있다.

사태는 심각하다. 보다싶이 멸망의 시각이 가까와올수록 제명을 다 산책사의 단풍들의 도전은 더욱 악랄해지고있다. 피피보수패당은 권력을 휘두르며 온갖 부정부패와 향락을 일삼던 악습을 절대 버리지 않을뿐 아니라 어떤 수단과 방법을 다 동원해서라도 인민들의 초법투쟁을 짓밟고 저들의 싸이배진 반동정치로 그대로 연장해보려고 이를 갖고있다.

총풍은 뿌리째로 제거해야 후환이 없다. 남조선의 초법집회는 이미 박근혜역도 뿐만아니라 피피보수패당에게 사형선고를 내리었다. 박근혜역도의 집권 4년을 통하여 온갖 불행과 고통의 쓴맛을 다 본 남조선인민들에게 있어서 보수패당의 재집권은 절대로 허용될수 없다.

피피보수패당이 최후발악할수록 그에 대한 남조선인민들의 혐오감과 환멸은 더욱 커지고있으며 세 정적, 세 정행에 대한 그들의 요구도 더욱 강렬해지고있다.

남조선 각계 인민들은 분노의 초법투쟁정기를 무서운 정밀의 활화산으로 터쳐나갈것이며 그 거대한 열기로 역사의 오통물을 가지않고 불태워버릴것이다.

장 인 양

은종일 어둡침침한 청와대안방에 간결하게 찍혀진 불어박혀 시시각각 슬픔을 조이는 탄핵심판을 모면해볼 어리석은 굴러만 하고있는 박근혜역도가 또 다시 패배한 망풍을 저지시켰다.

얼마전 피피헌법제안소가 제시한 탄핵심판을 위한 최종본문의 남을 하두 앞두고 역도가 거기에 나가지 않았다고 또 다시 나치배진 것이다. 그리고는 서면전송을 통해 제년의 회의를 모두 부인하고 합리화하는 추태를 부리었다.

결국 박근혜역도는 남조선인민들앞에 반성하고 사죄해야 할 마지막 기회마저 이렇게 차연치고거부하였다.

이것도 미리 작정하였던 놀음이었다.

특검의 수사기간이 끝나 시기를 노리고 어떻게 하나 시간을 끌며 탄핵심판을 무마해 보려는것이 박근혜와 그 측근들의 속구남인것이다.

이처럼 특검수사에 대한 여론의 목소리에 한사코 귀를 틀어막고 제법만 제법이라고 하면서 후안무치하게 놀아대는 박근혜역당의 시종일관한 변질기술은 가뜰이나 분노로 달아온 민심을 더욱 죽기마치려 함을 하였다.

그러기 나팔거나 박근혜역도와 피피보수패거리들은 아직까지 민심의 요구에 도전하여 저들에게 불리한 판국을 뒤집어보려고 미친듯이 남쫓고있다. 《헌법제안소》의 남

청와대 광년의 마지막 발버둥질

은종일 어둡침침한 청와대안방에 간결하게 찍혀진 불어박혀 시시각각 슬픔을 조이는 탄핵심판을 모면해볼 어리석은 굴러만 하고있는 박근혜역도가 또 다시 패배한 망풍을 저지시켰다.

얼마전 피피헌법제안소가 제시한 탄핵심판을 위한 최종본문의 남을 하두 앞두고 역도가 거기에 나가지 않았다고 또 다시 나치배진 것이다. 그리고는 서면전송을 통해 제년의 회의를 모두 부인하고 합리화하는 추태를 부리었다.

결국 박근혜역도는 남조선인민들앞에 반성하고 사죄해야 할 마지막 기회마저 이렇게 차연치고거부하였다.

이것도 미리 작정하였던 놀음이었다.

특검의 수사기간이 끝나 시기를 노리고 어떻게 하나 시간을 끌며 탄핵심판을 무마해 보려는것이 박근혜와 그 측근들의 속구남인것이다.

이처럼 특검수사에 대한 여론의 목소리에 한사코 귀를 틀어막고 제법만 제법이라고 하면서 후안무치하게 놀아대는 박근혜역당의 시종일관한 변질기술은 가뜰이나 분노로 달아온 민심을 더욱 죽기마치려 함을 하였다.

그러기 나팔거나 박근혜역도와 피피보수패거리들은 아직까지 민심의 요구에 도전하여 저들에게 불리한 판국을 뒤집어보려고 미친듯이 남쫓고있다. 《헌법제안소》의 남

은것으로서 넌은 이미 박정희의 집권때부터 청와대에서 《정경유착》을 통한 부정수부재 배후라고 실현해왔다.

역도가 《어려운 경제사정》을 핑계로 재법들에 대한 사면유령을 밀어붙인것이라는가 《경제활성화》의 미명하에 중소기업들을 희생시키고 한눈도 못보는 대기업들에 특권을 쏟아주기 위한 기업합병과 철도, 전력, 의료 등 공공부문을 민영화하기 위한 놀음에 배반된것은 넌의 범죄적정체를 고발하고 있다. 박근혜가 대중명지에게 올라왔기 바

쁘게 애미를 통가하는 이따위 부정수부재들에 미쳐들어감으로써 청와대는 거대한 부정자금을 금고로 되어버렸다.

남조선은 합법의 한우장으로 만들어놓은 부정부패의 왕조인 박근혜를 리세용의 뒤를 따라 지체없이 구속하여 법외의 정상을 송두리째 파헤쳐야 한다는것이 남조선인민의 한결같은 요구이다.

박근혜역당이 단말마적으로 발악할수록 추악한 범죄의 내막은 더욱 드러나 국민의 합법적 권리를 지키기 위한 남조선인민의 중요와 항거는 더욱 거세어질것이다.

본사기자 권설하

은것으로서 넌은 이미 박정희의 집권때부터 청와대에서 《정경유착》을 통한 부정수부재 배후라고 실현해왔다.

역도가 《어려운 경제사정》을 핑계로 재법들에 대한 사면유령을 밀어붙인것이라는가 《경제활성화》의 미명하에 중소기업들을 희생시키고 한눈도 못보는 대기업들에 특권을 쏟아주기 위한 기업합병과 철도, 전력, 의료 등 공공부문을 민영화하기 위한 놀음에 배반된것은 넌의 범죄적정체를 고발하고 있다. 박근혜가 대중명지에게 올라왔기 바

쁘게 애미를 통가하는 이따위 부정수부재들에 미쳐들어감으로써 청와대는 거대한 부정자금을 금고로 되어버렸다.

남조선은 합법의 한우장으로 만들어놓은 부정부패의 왕조인 박근혜를 리세용의 뒤를 따라 지체없이 구속하여 법외의 정상을 송두리째 파헤쳐야 한다는것이 남조선인민의 한결같은 요구이다.

박근혜역당이 단말마적으로 발악할수록 추악한 범죄의 내막은 더욱 드러나 국민의 합법적 권리를 지키기 위한 남조선인민의 중요와 항거는 더욱 거세어질것이다.

본사기자 권설하

은것으로서 넌은 이미 박정희의 집권때부터 청와대에서 《정경유착》을 통한 부정수부재 배후라고 실현해왔다.

역도가 《어려운 경제사정》을 핑계로 재법들에 대한 사면유령을 밀어붙인것이라는가 《경제활성화》의 미명하에 중소기업들을 희생시키고 한눈도 못보는 대기업들에 특권을 쏟아주기 위한 기업합병과 철도, 전력, 의료 등 공공부문을 민영화하기 위한 놀음에 배반된것은 넌의 범죄적정체를 고발하고 있다. 박근혜가 대중명지에게 올라왔기 바

쁘게 애미를 통가하는 이따위 부정수부재들에 미쳐들어감으로써 청와대는 거대한 부정자금을 금고로 되어버렸다.

남조선은 합법의 한우장으로 만들어놓은 부정부패의 왕조인 박근혜를 리세용의 뒤를 따라 지체없이 구속하여 법외의 정상을 송두리째 파헤쳐야 한다는것이 남조선인민의 한결같은 요구이다.

박근혜역당이 단말마적으로 발악할수록 추악한 범죄의 내막은 더욱 드러나 국민의 합법적 권리를 지키기 위한 남조선인민의 중요와 항거는 더욱 거세어질것이다.

본사기자 권설하

은것으로서 넌은 이미 박정희의 집권때부터 청와대에서 《정경유착》을 통한 부정수부재 배후라고 실현해왔다.

역도가 《어려운 경제사정》을 핑계로 재법들에 대한 사면유령을 밀어붙인것이라는가 《경제활성화》의 미명하에 중소기업들을 희생시키고 한눈도 못보는 대기업들에 특권을 쏟아주기 위한 기업합병과 철도, 전력, 의료 등 공공부문을 민영화하기 위한 놀음에 배반된것은 넌의 범죄적정체를 고발하고 있다. 박근혜가 대중명지에게 올라왔기 바

쁘게 애미를 통가하는 이따위 부정수부재들에 미쳐들어감으로써 청와대는 거대한 부정자금을 금고로 되어버렸다.

남조선은 합법의 한우장으로 만들어놓은 부정부패의 왕조인 박근혜를 리세용의 뒤를 따라 지체없이 구속하여 법외의 정상을 송두리째 파헤쳐야 한다는것이 남조선인민의 한결같은 요구이다.

박근혜역당이 단말마적으로 발악할수록 추악한 범죄의 내막은 더욱 드러나 국민의 합법적 권리를 지키기 위한 남조선인민의 중요와 항거는 더욱 거세어질것이다.

본사기자 권설하

은것으로서 넌은 이미 박정희의 집권때부터 청와대에서 《정경유착》을 통한 부정수부재 배후라고 실현해왔다.

역도가 《어려운 경제사정》을 핑계로 재법들에 대한 사면유령을 밀어붙인것이라는가 《경제활성화》의 미명하에 중소기업들을 희생시키고 한눈도 못보는 대기업들에 특권을 쏟아주기 위한 기업합병과 철도, 전력, 의료 등 공공부문을 민영화하기 위한 놀음에 배반된것은 넌의 범죄적정체를 고발하고 있다. 박근혜가 대중명지에게 올라왔기 바

쁘게 애미를 통가하는 이따위 부정수부재들에 미쳐들어감으로써 청와대는 거대한 부정자금을 금고로 되어버렸다.

남조선은 합법의 한우장으로 만들어놓은 부정부패의 왕조인 박근혜를 리세용의 뒤를 따라 지체없이 구속하여 법외의 정상을 송두리째 파헤쳐야 한다는것이 남조선인민의 한결같은 요구이다.

박근혜역당이 단말마적으로 발악할수록 추악한 범죄의 내막은 더욱 드러나 국민의 합법적 권리를 지키기 위한 남조선인민의 중요와 항거는 더욱 거세어질것이다.

본사기자 권설하

은것으로서 넌은 이미 박정희의 집권때부터 청와대에서 《정경유착》을 통한 부정수부재 배후라고 실현해왔다.

역도가 《어려운 경제사정》을 핑계로 재법들에 대한 사면유령을 밀어붙인것이라는가 《경제활성화》의 미명하에 중소기업들을 희생시키고 한눈도 못보는 대기업들에 특권을 쏟아주기 위한 기업합병과 철도, 전력, 의료 등 공공부문을 민영화하기 위한 놀음에 배반된것은 넌의 범죄적정체를 고발하고 있다. 박근혜가 대중명지에게 올라왔기 바

쁘게 애미를 통가하는 이따위 부정수부재들에 미쳐들어감으로써 청와대는 거대한 부정자금을 금고로 되어버렸다.

남조선은 합법의 한우장으로 만들어놓은 부정부패의 왕조인 박근혜를 리세용의 뒤를 따라 지체없이 구속하여 법외의 정상을 송두리째 파헤쳐야 한다는것이 남조선인민의 한결같은 요구이다.

박근혜역당이 단말마적으로 발악할수록 추악한 범죄의 내막은 더욱 드러나 국민의 합법적 권리를 지키기 위한 남조선인민의 중요와 항거는 더욱 거세어질것이다.

본사기자 권설하

은것으로서 넌은 이미 박정희의 집권때부터 청와대에서 《정경유착》을 통한 부정수부재 배후라고 실현해왔다.

역도가 《어려운 경제사정》을 핑계로 재법들에 대한 사면유령을 밀어붙인것이라는가 《경제활성화》의 미명하에 중소기업들을 희생시키고 한눈도 못보는 대기업들에 특권을 쏟아주기 위한 기업합병과 철도, 전력, 의료 등 공공부문을 민영화하기 위한 놀음에 배반된것은 넌의 범죄적정체를 고발하고 있다. 박근혜가 대중명지에게 올라왔기 바

쁘게 애미를 통가하는 이따위 부정수부재들에 미쳐들어감으로써 청와대는 거대한 부정자금을 금고로 되어버렸다.

남조선은 합법의 한우장으로 만들어놓은 부정부패의 왕조인 박근혜를 리세용의 뒤를 따라 지체없이 구속하여 법외의 정상을 송두리째 파헤쳐야 한다는것이 남조선인민의 한결같은 요구이다.

박근혜역당이 단말마적으로 발악할수록 추악한 범죄의 내막은 더욱 드러나 국민의 합법적 권리를 지키기 위한 남조선인민의 중요와 항거는 더욱 거세어질것이다.

본사기자 권설하

조선일본군성노예 및 강제연행 피해자문제대책위원회 대변인담화

력사에 일제의 조선인학살, 조선인간담행의 피비린 남로 기록된 1919년 3월 1일 로부터 98번째 년들이 새겨졌다.

조선의 독립을 쫓으며 평화적 시위에 떨쳐나선 10여만명의 조선사람들을 무자비적으로 탄압학살한 반인륜적범죄가 력사의 심판을 모면한채 현재가 가까이 올랐다.

아름지 않은 상처, 처벌받지 않은 범죄의 행적을 물이켜보며 우리는 세기가 바뀌고 세대가 교체되었어도 조금도 변하지 않은 일본의 군국주의적, 제국주의적책질을 다시금 재확인하고 있다.

지난 세기 일본을 뺀출된 《유미현강》으로부터의 야시 아해방》의 종조가 오늘날도 계속되고 840만여명의 조선사람들을 강제 연행 하였으며 100여만명을 학살하고 20만명의 조선녀성들을 일본군성노예로 끌여가는 등 40여년 동안 강행되던 조선인학살

정적이 반공화국적대시책들과 총련담화, 제일조선인학살에 이어지고있는 현실이 바로 그렇다.

머질전에도 일본의 내각관방장관의 입에서 일본군성노예 강제연행을 부정하는 발언이 튀어나오고 조선의 땅인 독도를 일본의 영토로 세 세대들의 교과서에까지 버젓이 올리였으며 헌법을 지킨다는 재판소가 제일조선학생들의 민족교육권을 거머쥔일이 있었다.

지어는 남의 땅에 세워진 일본군성노예소녀상마치 없애라고 생억지를 쓰고 그 무슨 《북조선이씨일기》에 대한 선제공격》은까지 시승없이 내뿜고있다.

현실은 일본이 과거의 침략행위, 반인륜적범죄행위에 대해 떨갈만한 죄의식도 자책도 느끼지 않고있으며 오히려 지난 세기를 통가하는 군국주의야망, 복수야망에 불타 재침준비를 서두르고있다는것을 특출히 보여

주고있다.

과거의 잘못에서 교훈을 찾지 못하면 더 큰 파국을 면하는 법이 없으므로 초래되는 후과는 치명적이기마련이다.

일본이 범죄적사에서 교훈을 찾지 못하고 또 다시 죄악의 전철을 밟는다면 다시는 세상이 수 없는 영원한 과멸의 구렁텅이에 떨어지게 된다는것을 알아야 한다.

력사와 정가 심판하고 세계와 인구가 규탄하는 지난날의 범죄행위에 대하여 대담하게 인정하고 전심으로 반성하며 철저히 배상하는 길만이 진정으로 일본의 안정되고 평화로운 미래를 담보할수 있다.

우리는 일본이 세기를 두고 우리 나라와 우리 인민에게 강요한 모든 불행과 고통, 손실에 대하여 끝까지 계산할것이며 그 역사적정산이 실현될 때까지 줄기차게 투쟁해나갈것이다.

주제106(2017)년 3월 1일

평 양

남조선에서 《정경유착》으로 특혜를 누려온 재벌들에 대한 각계층의 분노와 항의규탄이 높아지고있다. 그것은 최근 삼정선거 부회장 리세용이 박근혜, 최순실인들에 대한 퇴출행위로 구속된것을 계기로 더욱 고조되고있다.

지난해 《박근혜, 최순실추방사건》이 터졌을 때 삼정선거 부회장 리세용이 박근혜역도 부패정권 등과 관련하여 특혜를 받았고 그 대가로 억대년과 최순실년에 많은 자금을 투자하였다는 실은 많이 내려왔다. 사태는 지난 1월 리세용의 구속으로 이어졌다. 그러나 피피헌법은 《구속사유》의 필요성을 인정하지 않았다.》고 하니 뭐니 하면서 구속정권을 거각시켰고 리세용은 풀려나게 되었다. 재법을 로공화하고 싸고도는 이러한 망풍에 대한 남조선 각계층의 항의규탄이 고조된것은 물론이다. 분노한 민심이 머뭇거리 리세용에 대한 구속정권이 재정구된것은 당연한것이다. 그의 퇴출행위가 봉부 부인할수 없는 사실로 입증되었기때문이다.

지금 특대형추방사건에 대한 수사과 본격화되면서 리세용과 박근혜사이에서 벌어진 죄질범죄가 남남이 파헤쳐지고있다.

그러면 이와 관련하여 안일부절 못해하며 불관우의 풍류타하는자들이 있다. 다음이인 박근혜역도이다.

지금 이자들은 편법스런것도 리세용구속과 저들의 탄핵은 변한상이 없다. 《대가성》은 없었다.》고 하니 하고 변명하며 저들의 추악한 범죄를 가려주기 위해 급급하고있다. 나중에는 수사를 끝까지 저지르려 한다

제법 큰소리까지 치고있다. 이 얼마나 쉼버리까지 그지없는자들인가.

박근혜, 최순실인들이 막강한 권력을 휘두르면서 삼정그룹으로 무리 무리 수천만달러의 막대한 돈을 받아치며 그 대실 리세용은 경영권을 맡아 수억달러의 리득을 얻은 사실은 이미 남남이 드러났다.

밝혀져야 하는 2015년 7월 박근혜역도는 리세용을 만난 최순실모녀에 대한 지원을 모골적으로 요구해나섰다. 박근혜의 조작에 의해 삼정그룹 계열회사에 대한 합병이 이루어지고 경영권이 리세용에게 인계되었다. 이어 리세용은 도이원

데 있는 최순실의 유명회사에 수억달러를 송금해주었다. 뿐만아니라 박근혜가 자기의 사리사욕을 채울 불순한 목적을 최순실을 내세워 만든 미르재단, K스모크재단과 유명회사들에 많은 기부금을 쏟아부었다. 이것이 박근혜의 리세용에게 삼정그룹의 경영권을 장악하도록 도와주려고 하고 그 대가로 막대한 돈을 요구한 걸파라

는것은 불보듯 명백하다.

실지로 삼정그룹 합병이 이루어진 후에 리세용은 최순실모녀에 대한 본격적인 지원계획을 세우고 그에 따라 회사의 돈까지 비법적으로 빼돌려 그들에게 넘겨주었으며 그 과정에서 거액의 돈을 탐욕하였다. 리세용은 지난해 《박근혜, 최순실추방사건》이 터져나와 사법부에서 최순실모녀에 대한 지원금의 반환을 요구해나섰다. 박근혜의 조작에 의해 삼정그룹 계열회사에 대한 합병이 이루어지고 경영권이 리세용에게 인계되었다. 이어 리세용은 도이원

는것은 불보듯 명백하다.

실지로 삼정그룹 합병이 이루어진 후에 리세용은 최순실모녀에 대한 본격적인 지원계획을 세우고 그에 따라 회사의 돈까지 비법적으로 빼돌려 그들에게 넘겨주었으며 그 과정에서 거액의 돈을 탐욕하였다. 리세용은 지난해 《박근혜, 최순실추방사건》이 터져나와 사법부에서 최순실모녀에 대한 지원금의 반환을 요구해나렸다. 박근혜의 조작에 의해 삼정그룹 계열회사에 대한 합병이 이루어지고 경영권이 리세용에게 인계되었다. 이어 리세용은 도이원

는것은 불보듯 명백하다.

실지로 삼정그룹 합병이 이루어진 후에 리세용은 최순실모녀에 대한 본격적인 지원계획을 세우고 그에 따라 회사의 돈까지 비법적으로 빼돌려 그들에게 넘겨주었으며 그 과정에서 거액의 돈을 탐욕하였다. 리세용은 지난해 《박근혜, 최순실추방사건》이 터져나와 사법부에서 최순실모녀에 대한 지원금의 반환을 요구해나렸다. 박근혜의 조작에 의해 삼정그룹 계열회사에 대한 합병이 이루어지고 경영권이 리세용에게 인계되었다. 이어 리세용은 도이원

는것은 불보듯 명백하다.

실지로 삼정그룹 합병이 이루어진 후에 리세용은 최순실모녀에 대한 본격적인 지원계획을 세우고 그에 따라 회사의 돈까지 비법적으로 빼돌려 그들에게 넘겨주었으며 그 과정에서 거액의 돈을 탐욕하였다. 리세용은 지난해 《박근혜, 최순실추방사건》이 터져나와 사법부에서 최순실모녀에 대한 지원금의 반환을 요구해나렸다. 박근혜의 조작에 의해 삼정그룹 계열회사에 대한 합병이 이루어지고 경영권이 리세용에게 인계되었다. 이어 리세용은 도이원

는것은 불보듯 명백하다.

실지로 삼정그룹 합병이 이루어진 후에 리세용은 최순실모녀에 대한 본격적인 지원계획을 세우고 그에 따라 회사의 돈까지 비법적으로 빼돌려 그들에게 넘겨주었으며 그 과정에서 거액의 돈을 탐욕하였다. 리세용은 지난해 《박근혜, 최순실추방사건》이 터져나와 사법부에서 최순실모녀에 대한 지원금의 반환을 요구해나렸다. 박근혜의 조작에 의해 삼정그룹 계열회사에 대한 합병이 이루어지고 경영권이 리세용에게 인계되었다. 이어 리세용은 도이원

는것은 불보듯 명백하다.

실지로 삼정그룹 합병이 이루어진 후에 리세용은 최순실모녀에 대한 본격적인 지원계획을 세우고 그에 따라 회사의 돈까지 비법적으로 빼돌려 그들에게 넘겨주었으며 그 과정에서 거액의 돈을 탐욕하였다. 리세용은 지난해 《박근혜, 최순실추방사건》이 터져나와 사법부에서 최순실모녀에 대한 지원금의 반환을 요구해나렸다. 박근혜의 조작에 의해 삼정그룹 계열회사에 대한 합병이 이루어지고 경영권이 리세용에게 인계되었다. 이어 리세용은 도이원

는것은 불보듯 명백하다.

실지로 삼정그룹 합병이 이루어진 후에 리세용은 최순실모녀에 대한 본격적인 지원계획을 세우고 그에 따라 회사의 돈까지 비법적으로 빼돌려 그들에게 넘겨주었으며 그 과정에서 거액의 돈을 탐욕하였다. 리세용은 지난해 《박근혜, 최순실추방사건》이 터져나와 사법부에서 최순실모녀에 대한 지원금의 반환을 요구해나렸다. 박근혜의 조작에 의해 삼정그룹 계열회사에 대한 합병이 이루어지고 경영권이 리세용에게 인계되었다. 이어 리세용은 도이원

는것은 불보듯 명백하다.

실지로 삼정그룹 합병이 이루어진 후에 리세용은 최순실모녀에 대한 본격적인 지원계획을 세우고 그에 따라 회사의 돈까지 비법적으로 빼돌려 그들에게 넘겨주었으며 그 과정에서 거액의 돈을 탐욕하였다. 리세용은 지난해 《박근혜, 최순실추방사건》이 터져나와 사법부에서 최순실모녀에 대한 지원금의 반환을 요구해나렸다. 박근혜의 조작에 의해 삼정그룹 계열회사에 대한 합병이 이루어지고 경영권이 리세용에게 인계되었다. 이어 리세용은 도이원

는것은 불보듯 명백하다.

실지로 삼정그룹 합병이 이루어진 후에 리세용은 최순실모녀에 대한 본격적인 지원계획을 세우고 그에 따라 회사의 돈까지 비법적으로 빼돌려 그들에게 넘겨주었으며 그 과정에서 거액의 돈을 탐욕하였다. 리세용은 지난해 《박근혜, 최순실추방사건》이 터져나와 사법부에서 최순실모녀에 대한 지원금

미국내에서 증대되는 공포는 우리의 승리에 대한 증시이다

지금 미국내에서 불안과 공포가 급격히 증대되고 있다. 우리가 새로운 전략무기체제를 개발한것이 계기로 되었다.

지난 2월 12일 정세하는 최고명도자 김정은동지의 직접적인 지도로써 우리의 국방과학자, 기술자들이 개발한 지상대지상중거리미사일인 대륙간탄도(북극성-2)형식시험발사가 성공적으로 진행되었다. 요란한 동을 리드하며 자행발사대를 거머안 《북극성-2》형식시험이 거대한 불꽃을 시현한 내륙에서 이득한 만리대공으로 날아오르는 모습을 빈틈 없이 바라보신 경애하는 최고명도자동지께서는 온 누리에 환하게 웃음방울 호호탕탕 날리시며 시험발사에 참가한 우리의 국방과학자, 기술자, 군인들을 엄중안으로 시험합성과 열렬히 축하하셨다.

우리 군대와 인민은 이 혁명적인 화복을 보며 우리 국가의 존엄과 인민의 안녕을 위해 끝없는 헌신과 로고를 바쳐가고 계시는 경애하는 최고명도자동지에 대한 헌없는 감사와 그리움의 정으로 눈시울을 뜨겁게 적시면서 가슴을 세차게 들먹이셨다. 그리고 온몸에 전율처럼 췌뚱하며 흐르는 승리의 쾌감을 한껏 맛보셨다.

반면에 미질선색은 기절충황하고 있다.

미국이 원복하게 개발된 우리의 《북극성》형식시험의 모양을 본것이 지난해 8월이었다. 우리의 전략사수들이 탐색되어 검루를 비추는 것은 못에서 비둘기를 부를부름 《북극성》형식시험을 볼수있을 《북극성》형식시험이 아득한 장광을 켜지거나 장광한 비행운을 펼치며 새겨지는 광

경을 보고 미국은 이복합수 없는 전복을 느꼈었다. 선군조선이 최정형방기로 불리우는 핵탄두 탑재 잠수함발사사발로켓을 보유하고있다는것을 저들 눈으로 확증하였기때문이다. 조선의 전략잠수함들이 태평양지역의 미군사기지들은 물론 미국본토의 가짜에이까지 은밀히 접근하여 핵라격을 가할수 있다는 불안감으로 하여 미호전제총은 발원점을 잡수가 없게 되었다.

그런데 불과 6개월만에 《북극성-2》형식 시험이 되어났다. 마치 쌍둥이 같지만 이번에는 전략잠수함이 아니라 미사일발사사발로 탑재된 미사일에서 발사되어 멋진 장관을 펼쳐보였다. 우리가 새로운 주체란, 주체무기를 가지고 수중과 지상에서 그 어떤 미사일발사사발로 탑재된 미사일에서 발사되어 멋진 장관을 펼쳐보였다. 우리가 새로운 주체란, 주체무기를 가지고 수중과 지상에서 그 어떤 미사일발사사발로 탑재된 미사일에서 발사되어 멋진 장관을 펼쳐보였다. 우리가 새로운 주체란, 주체무기를 가지고 수중과 지상에서 그 어떤 미사일발사사발로 탑재된 미사일에서 발사되어 멋진 장관을 펼쳐보였다.

격으로 불안감과 공포심을 증대시키고 있다. 미국인리버티프론트 《회평론 포스트》, 미국신문 《워싱턴 포스트》 등의 언론들은 《조선 트럼피에게 지옥의 핵키 안겨줌》, 《조선의 미야 입은 미국을 핵공경에 몰아넣었다》, 《트럼프 문명적인 결정을 해야 할 처지에 직면》이라는 제목들을 달고 미대결에서 미국이 난처한 처지에 빠저들고있으며 미국에 대한 조선의 위협이 더욱더 커지고있다고 분석해 들고있다.

우리 공화국의 비상한 핵억제력강화속도에 감명하여 미국내에서 급격히 증대되는 불안과 공포는 우리의 위대한 승리에 대한 명백한 증시이다.

미국이 생겨난 력사는 수백년이다. 그 기간 미국은 다른 나라들에 대한 위협공갈, 침략과 전쟁만을 일삼아왔다. 남을 비모하고 짓밟는것이 미국의 생존방식이고 남에게 불안과 공포를 주는것이 아메리카제국의 약속이다. 추후세력들도 악의 제국인 미국이 저들을 구박하고 학대하지 않을 가 하여 상진의 눈치를 부지못하 살피고 열심히 발라뒀으면서 불안하게 살고있는것이 오늘날의 미국적인 현실이다.

우리 나라가 물로 갈라지고 전쟁의 화를 겪었으며 우리 인민이 오랜 기간 핵위협공갈속에서 살아가오면 안되게 된것도 미국의 생존방식, 악습이 반영된 대조선적대시정책의 결과이다.

력사적으로 불안과 공포는 남의것 이었고 적과 민족감정이 미국의것 으로 되어있다.

그 고약하고도 나쁜 력사가 이제 민부리쳐 뒤엎어지고있다. 미국

이 불안과 공포를 느끼면서 뒤늦게 되는 새로운 력사의 장이 펼쳐지고 있다.

가관은 미국이 수지도 느끼지 못하고 비명을 울리고있는것이다. 그럴 수밖에 없다.

우리가 처음으로 전략잠수함 탄도탄수중시험발사를 진행하였을 때에 미국을 비롯한 적대세력들은 조선의 잠수함탄도탄개발은 초기단계이므로 당장 위협이 되지 않는다고 하면서 애써 불안감을 누르며 저들을 스스로 위안하였다. 미국 등 잠수함탄도탄을 보유한 몇몇 국가들을 볼 때 수중사중시험을 실시 개발까지 보통 4-5년이 걸렸고 사중을 잠수함도 2-3년이 지나야 개발했다고 한다. 그들은 그에 비추어 볼 때 조선이 잠수함탄도탄과 3000t급사중잠수함을 개발하자 한 번 빨라 4-5년 정도의 시간이 걸렸것이라고 광고하였다.

그 예상이 완전히 빗나갔다.

우리는 2015년 5월에 전략잠수함탄도탄의 수중사중시험을 성공시키고 1년도 못되는 기간에 비행시험단계에 진입하는 빠른 개발속도를 피하였다. 이어 5개월만에 또 다시 보다 높은 단계의 탄도탄수중시험발사에서 대성공을 거둬으로써 핵무력도화에서 커다란 군사적전변을 이룩하였다는것을 온 세계에 알여주었다. 그로부터 6개월후에는 이 무기체제를 시거가 크게 연원된 지상대지상중거리미사일탄도탄도 새롭게 개발하였것이다.

국제적으로도 공인된 전략무기개발속도에 뒤를 놓고 초고속으로 내달리는 우리의 불굴의 의지와 기상양애 미국을 비롯한 적대세력들은

낮뜨거울줄 모르고 비명을 지르고있는것이다.

CNN방송, AP통신을 비롯한 미국의 주요언론들은 조선이 추적가능한 외국제발사사발대신에 자체로 리버리탄도탄자행발사사발을 만들고 지상대지상중거리미사일개발에서 높은 기술인 행발사방식을 활용하였으며 자체제조 및 유도, 요격회피기술, 재돌입 등의 고난도기술을 도입한 새로운 전략무기를 보유하고있다. 전혀 예상치 못했던 기술적진보로서 대륙간탄도미사일발사도 가능하다는것을 실증해준다. 조선은 새로운 탄도탄발사사발로 트럼프형정부를 혼란케하고 압박하고있다고도 요란하게 떠들었다. 미국의 인터넷네트워크사이트 《뉴스나우》는 오바마행정부의 《전략적인내》정책이 조선이 핵 및 미사일기술을 향상시키도록 시간간 계몽하였다고 하면서 트럼프형정부가 더이상 시간을 팔지할 여유가 없는것이 분명하고 보도하였다.

그렇다. 시간은 미국의것이 아니다. 현 미행정부는 시간간 계몽도 조선의것이라는것을 명확히 인식해야 한다.

미국이 이진처럼 우리를 대하러 하다가는 더 큰 곤경에 빠져들수 있다. 트럼프형정부가 력사의 요충을 언저린 대조선적대시정책을 꺼내놓고 버린다고있지만 그것이아름답고 보에 있어서 최근으로 된다는것을 알아야 한다. 오바마가 제재와 핵위협공갈의 두 수단을 동시에 쓰는 정책은 실시하여 최후발악하였지만 총애와 같은 폐해의 오명을 쓰고 권력의 자리에서 물러가지 않았던 인물이였다. 우리의 강위력한 핵전략무기인 《북극성-2》형식시험의 시험발사가

미국에 엄청난 경고해주는것이 있다. 그것은 우선 제재가 지역자장을 동력으로 하여 힘차게 전진하는 선군조선에 절대로 통하지 않는다는것이다.

미국은 우리가 위한 자위적조치를 결코 유엔안전보장평의회를 현속 발동하여 《제재결의》들을 마구 조락해왔다.

하지만 우리는 이번엔 발사사발과 탄도탄의 설계와 제작, 발사에 이르기까지 모든것을 100% 우리의 지혜, 우리의 힘, 우리의 기술로 개발함으로써 미국의 제재를 무용지물로 만들어놓았다. 미국은 앞으로 우리가 얼마나 많은 미대륙간탄도탄자행발사사발을 보유하게 될지 전혀 알수 없게 되어있다.

다음으로는 우리와의 미사일대결전에서 미국이 패할수밖에 없다는것이다.

이번엔 미국을 비롯한 적대세력들은 우리의 탄도탄자행발사사발이 신속히 기동하여 발사준비를 갖추고서 상해지상중거리미사일탄도탄 《북극성-2》형식시험발사를 진행한 현상을 물론 그 기기도 사면에 전혀 알아채지 못하였다. 그로 하여 우리의 탄도탄을 발사준비단계에서 신세라라할 수 있다는 말을 저들의 혀끝에 더는 울릴수 없게 되었다.

로씨야의 한 언론은 우리의 《북극성-2》형식시험발사에 대해 여러 측면에서 평하면서 조선이 미사일대결전에서 밀어질 경우 조선이 우세를 차지할수 있으며 짧은 기간에 와 같이 발전된 무기체계를 개발한 것은 조선에 대한 제재와 정치적압박이 전혀 통하지 않는다는것을 실증해준다고 주장하였다.

지금 미국은 우리가 올해초에 쓴 비사업이 마감단계에 이르렀다고 온 세계에 선언한 대륙간탄도미사일 시험발사를 언제 단행할지 몰라 눈을 찡찡거리고 살피고있는데 속이 조마조마해있다. 그를 막을 방도가 별로 없다. 비대한 힘을 믿고 요격에 발동하여 《북극성-2》형식탄도탄을 비롯한 우리의 전략력대적수단들이 미국의 정수리를 사정없이 깰것을 염두에 두고있을 것이다.

미행정부가 방대한 무력을 동원한 《키 리프》, 《북극성》합동군사연습을 강행하여 북극과 공포에 떠는 퍼피들을 눈앞에서 죽이고 저들의 떨리는 마음도 위안해보려 하지만 그것은 상책이 못된다. 오히려 더 엄청난 후과를 초래할수 있다.

미국의 핵전쟁연습소통은 대조선적대시정책의 가장 집중적이면서도 로폭적인 표현이다.

우리가 그것을 절대로 용납할수 없다는것은 너무도 자명하다. 미행정부는 자국언론들이 대결을 고집하는 정책이 조선의 더 큰, 더 발전된 미사일 및 핵시행을 초래하게 될것이라고 하면서 정책전환을 해야 한다고 충고하는 목소리를 심중히 들을 필 요가 있다.

우리는 미국이 대조선적대시정책을 종식시키지 않는 한 핵무력을 중추로 하는 자위적국방력과 선제공격 능력강화에 더욱 박차를 가할것이다. 이에 대한 우리의 힘, 우리의 신념, 우리의 의지는 한치의 드림도 없다. 미국은 항시적인 불안과 공포속에서 살아 존재하는것을 승명으로 받아들이려 할것이다.

리 경 수

대미추종에 환장한자들의 역겨운 추태

일본국내에서 당국의 대미추종행위에 대한 비난이 날음 따라 높아지고있다. 최근 한 야당인사는 기자회견에서 수 십여와 미국대통령 트럼프시사의 첫 일일수회담과 관련하여 《트럼프수중자세를 두드러지게 보여준 회담으로 되었다》고 비난하였다. 그는 트럼프정권이 지금까지의 미국력사에 없었던 이 상한 배타주의적행위를 취하고있다고 하면서 일본은 전세계가 우리의 눈치를 돌리고있는 정권과 사이좋게 지내려는 모습을 보여주었다. 이런 식으로는 많은 시민들은 모르지만, 사건이 되려는지 그에 대해 살펴보고있다고도 우려를 표시하였다.

일본에서 발행하는 출판물인 《일간판》, 《중국어》 등은 미국방정관 마르스의 일본행사가 일본침략한 한국유수무리였던 맥아더의 행동을 방불케 하여 일본은 70여년간 그 어떤 변화도 없이 여전히 미국의 핏덩이와 있다고 개탄하고 트럼프정정부에 아무하는것은 잡풀된 행운이다. 핵리해국 일본은 오히려 미국이 핵무기실험을 유지할것을 요구하고있다. 일본정부가 미국이 추종하면 진정한 동맹관계를 구축할수 없다는것을 망각하지 말기를 바란다고 충고하였다.

이것은 당국의 역겨운 대미추종행위를 더이상 방조할수 없어 되려는 일본민심의 수지와 분노의 목소리이다.

알려진바와 같이 지난 2월 10일부터 3일간의 걸쳐 일본정권자 미국을 행차하여 트럼프와 회담하였다. 그는 트럼프의 비위를 맞추느라고 미국의 고속철건설과 같은 하부구조건설행위를 지지하고 70만개의 일자리를 늘이도록 상원출 도와주기 위한 투자합의서 등을

진상품으로 들고갔다고 한다.

일본침략자가 들고가는 진상품보따리가 얼마나 있으면 국내외인들은 이구 동성으로 조공의요일에 올랐다고 야유조소하였는가.

비굴한 추태를 부린 대가로 그는 미국으로부터 일본에 대한 안보약속과 동맹에 대한 지지를 얻으려고 하였다. 외신들은 《이제는 큰 선물을 들고 트럼프를 만족시키기 위해 찾아왔다》, 《미국의 명품물품은 일본을 기쁘게 할것을 위해서 바빠달라달라 했었다》, 《미 명비언을 하였다》.

일본당국의 대미추종행위는 이것뿐이 아니다.

미국방정관 마르스가 일본을 행차하였을 때에도 추태를 부렸다. 24시간도 안되는 기간에 수상, 내각방장관, 외상, 방위성이 미치 식민지총독을 만나는 신하를처럼 굽신거리며 저마굴 찾아가 마르스를 만나 회담관을 벌려놓았다.

이를 놓고서도 언론들은 일본이 미국방정관을 영접하는데서 최고대우를 기록하였고 비난하였다.

자료들은 미일관계가 철저히 추종관계이며 일본은 미국의 핏덩이와 있는 식민지국가이라는것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

미국과 일본은 저들의 동맹관계를 《혈맹적인 관계》라고 공갈 떠들고있다. 그러나 미일관계는 철저히 추종관계이다. 다시말하면 미국은 상진의 지휘에, 일본은 하수인의 지지에 있다.

일제의 진주만공격을 계기로 양국이 되어 피어지는 식민지정착점을 벌려던것이 언제 있었는가싶게 미국과 일본이 오늘날 《혈맹관계》를 부르고있다. 별로 새삼스러울것은 아니다. 제후후 일본이

자기에게 핵침략을 일인 미국의 불예 스스로 제마달아들었것이다.

맥아더가 미군관함 《미주리》호의 함상에서 일본의 항복문서를 받아들일 때가 있던 때도 미국의 수침은 여태껏도 모른다.

제2차 세계대전후 일본을 강점한 미국의 대일정책의 기본은 어제날의 적국을 다시는 저들에게 도전할수 없는 정치군사적 및 경제적으로 만드는것이였다.

다시말하여 언약한 일본, 미국을 다시 위협할수 없는 일본으로 만들어 미국의 예측하에 묶이도록 저들의 세계제거 전략수행에 유리하게 리용하자는것이였다.

일본을 세계제거전략수행에 써먹으려는 미국의 대일정책은 크게 말려지지 않고있다. 오늘날 미국은 일본을 군국주의 국가, 전쟁국가로 다시 만들어 저들의 아시아대륙정착점전략수행에 복종시키려 하고있다.

세계제거전략의 중심을 아시아대륙정착점으로 정한 미국은 그 실현에서 추종세력을 특히 일본이 판전적협을 맺을것을 기대하고있다. 미국은 일본반동들의 군국화, 군사제국화를 공명적인 부세하며 저들의 전쟁사상에 단단히 얽여둘려고 하고있다. 동맹관계를 운운하여 일본《자위대》의 《해외작전능력개발》시킬것이라고 로폭적으로 떠들고 있다. 주변나라들의 명도분봉을 조장 격화시키는 일본에 대한 지지와 협력을 강화하고있다. 이것은 일본군국주의세력을 배양하여 동북아시아지역에서 잠재적적수들을 전제하고 지배권을 유지확장하려는 미국의 범죄적기도를 잘 드러내 보여주고있다.

미국의 전쟁지지를 지지 않고서는 아시아대륙정착점을 실현할수 없다는것이 일

본반동들의 사고관점이다. 일본은 력진 시대의 산물로서 이미 명분이 상실된 주일미군을 지금껏 붙잡아두고 원통화적역수의 미군유지비를 걷기하고있다. 상진을 위해서는 제 미치 벗어는중도 모르고 핵침범는 하수인으로서의 일본의 대미굴종자라는 결코 변하지않는것이 아니다. 미국에 의존하여 군사제국화와 세침야망을 실현하기 위해서이다.

해외침략야망에 들뜬 현 집권세력은 《평화헌법》을 완전히 배정해버리고 전쟁헌법을 조작하여 일본을 전쟁국가로 만들어 다른 나라들에 대한 선제공격을 강행하려고 미친듯이 날뛰고있다.

일본은 미국을 《평화의 사도》로 추어올리며 《국제평화주의와 《안정》을 위해서는 미국의 적극적인 편자가 불가결하다고 목청을 높이고있다. 미국에 전승하여 해외침략의 길에 나서려는 귀여물들은 전쟁국가 일본의 조급한 심리가 거기에 반영되고있다.

미일동맹은 미국의 아시아대륙정착점 전략과 일본의 세침야망실현을 위해 화약불을 쫓기며 질주하고있다.

미국은 부단한 전략적전적조종으로 일본이 아시아대륙정착점전략대우에서 저들의 의지에 따라 내달리는 기편자로 필것을 바라보고있다.

상진의 비위나 맞추며 대미굴종책으로 전명을 유지해오고있는 일본의 처지가 참으로 가련하다. 손우동행자 미국과 배합을 맞추며 돌아가는 일본군국주의자들의 세침행동의 길잡이 어떤것이었는가는 불보듯 뻔하다. 일본반동들은 무모한 대미추종이 불피고 심나래에 헤어나올수 없는 처양을 불러내다는것을 명심하는것이 좋을것이다.

리 현 도

로켓트 시험발사의 성공은 조선의 뚜렷한 대승리이다

로씨야인사 주장

얼마전 로씨야의 자브르라시론사 책임주필 알렉산드르 안드레예비치 프코노프가 우리의 지상대지상중거리미사일탄도탄 《북극성-2》형식시험발사의 완전성공과 관련하여 《포토소스》가 브라우디시론사 기자와 회담하였다. 그는 다음과같이 언급하였다.

조선이 중거리로켓트발사로 전세계에 강한 충격을 주었다. 미국, 일본 등 나라들을 어떤 실책에 몰아넣는 로켓트의 성과적 발사나 명중률이 아니라 그것이 완전히 새로운 형이라는게 있다.

조선의 김정정최고명도자동지께서는 현상에서 로켓트발사대 그치는 성원들을 고공격리해주시었다.

이 로켓트의 위력은 액체로켓트발사사발로부터 대승적으로 로켓트발사사발로 확고히 전환하였다는게 있다. 이것은 로켓트 제작기술이 완전무결하다는것을 의미한다.

이동하면서 발사준비를 할수 있어 적들이 미처 공격할수 없게 하여 그는 이번 결정은 민족적 단합을 실현하기 위한 정부의 조치이라고 밝혔다.

그는 로켓트의 독립과 주권을 존중할것을 미국에 요구하며 그는 이번 결정은 민족적 단합을 실현하기 위한 정부의 조치라고 밝혔다.

미국이 캄보디아인민들의 정당발수정인 승인한것을 놓고 이명주지대중 시비한것과 관련

한국의 독립과 주권을 존중할것을 미국에 요구

수리아에 대한 미국의 야수적인 공습만행

수리아에 대한 미국의 야수적인 공습만행

미국이 수리아에서 《반레로》의 비명하에 수많은 민간인들을 무참히 학살한 사실이 2월 23일 일 인민경감단체가 발표한 수리아에 대한 미국의 야수적인 공습만행에 대한 보도와 규율을 지어내고있다.

이שראל 미사일발위체계 시험 감행

이שראל이 2월 22일 개량된 《아이인》 돌비미사일발위체계 시험을 감행하였다. 시험에서는 미국과 이שראל이 공동으로 개발한 실험 《레미》로격미사일

이 처음으로 발사되었다고 한다. 이שראל의 이러한 행동은 지역평화를 격화시키는것을 하여 국제사회의 규율을 지어내고있다.

그러기나말거나 트럼프측은 자기들이 취하는 모든 조치들이 미국인들의 자유와 일차리조성을 위한것이라고 주장하면서 민주당에 대한 공격자세를 조금도 달리지 않고있다. 최근에도 공화당이 통제하는 미국의 하원에서는 메탄가스방출량을 줄이기 위한 오바마행정부의 규제조치를 무효화할수 있는 법안이 채택되었다. 공화당은 미국의 규제조치가 예레로게에 의존하고있는 서부주에서 일차리추속의 원인으로 되고있으며 결국 국내에서 예레로게 생산이 줄어들것이라는 주장을 하면서 이번 결정을 옹호하고있다. 민주당의 정책을 미국인들의 리의과는 배치되는것으로 내리막차라는데도 목적이 있었지만 보다는 공화당세력을 위함이라고 주장하는 예레로게특정세력의 리의를 충족시켜주자는데 그 건의도가 있다.

이러한 시기에 트럼프측은 로씨야와 내통하였다는 의혹이 제기되었것이다. 현 행정부에 대한 앙갚음으로 이를 막아주며 잘고있던 민주당으로서도 절호의 기회가 아닐수 없었다. 공화당과 민주당은 인본들을 내세워 현안을 풀이함으로써 끝내는 그가 사임하도록 하는게 성공한 민주당세력은 아니란 말도 없다.

하는 민첩성을 가지고있는데 로켓트의 또 다른 위력이 있다. 로켓트 시험발사의 성공은 조선의 뚜렷한 대승리이다.

조선은 바로 이러한 위력으로 자기의 자주권과 안전을 수호하고있다.

오늘날 미국과 친미적인 나라들에 있어서 더욱 무서운것은 자주적으로 살려는 조선인민의 의지이다.

조선인민은 오랜 기간에 걸쳐 이 의지를 현실로 보여주었다.

산 들 피해

철제의 마을배우에서 2월 22일 산불이 일어나 피해를 입었다.

전조한 날씨가 계속되고 선바람이 불면서 산불은 급속히 퍼져 이날현재 8600ha(에이커)의 산림이 불타버리고 40여의 살림집이 파괴되었었다. 3200명이 소제되었다.

현지에서 진화작업이 진행되고있다.

눈사태로 인명피해

야레로브리안의 남부지역에 있는 한 산간마을에서 2월 23일 눈사태가 일어나 인명피해가 났다.

눈사태로 살림집이 무너져 5명이 목숨을 잃었다.

현지에서 피해를 가지기 위한 조치가 취해지고있다.

【조선중앙통신】

파렴치한 령도강탈야망

우리의 신성한 령토인 독도에 대한 일본반동들의 파렴치하고도 날강도적인 강탈행동이 날이 갈수록 로폭화되고있다.

일본당국과 시마네현이 독도《명유권》을 주제로 하는 완전히 날조된 선전행위를 공동으로 제작, 배포하고 문부과학성이 앞장서서 독도를 일본토라고 표기한 초등, 중등학교의 학습지도요강을 공개하는 추세가 벌어지고 있는 속에 지난 2월 22일 시마네현의 마르에서서 그 무슨 《다케시마(독도)의 날》이라고 하는 해외망국행사를 열어버렸다.

올해까지 12번째로 벌어지는 이번에는 일본국회 의원 12명을 포함하여 460명이 무리로 끼여들었다.

일본에서 이 날이 벌어지고 추악한 놀음놀이 벌어져도 문제가 있지만 더욱 엄청난것은 그것을 계기로 우리의 신성한 독도를 《일본땅》으로 기정사실화하려는 국유인본토세력들의 책동이 더욱 활발해지고있는것이다.

이 놀음놀이는 내각부 정무관 이라키가 독도를 《일본토》라고 적기를 부리고 그에 앞서

얼마전에는 외상 기시다와 내각관방장관 스가가 독도의 《명유권》에 대한 최근 나발을 붙여대어 여론의 꽃을 맞았다.

일본에서 파렴치한 독도강탈행동은 당국의 주도하에 날이 갈수록 더욱 우심해지고있다.

일본반동들은 독도가 마치 그 누구에게 빼앗긴 저들의 명인것처럼 사하여온을 오히려 력사적 위국하고있다.

자라나는 새 세대들에게 외국권 행사자를 주위시키기 위해 력사교과서질필과 경정의 기준으로 되는 학습지도요강을 개정하였다.

일본의 사무원이주에들은 도쿄한복판에서 독도《명유권》을 주장하는 집회를 로폭적으로 벌려 현은 현은 독도문제를 전제로 말아보는 《명도》주권대결기 《최초정식》이라는 부서를 새로 내오는 망동을 부리고있다.

일본반동들의 명도강탈야망은 현의 사무원이주에들은 도쿄한복판에서 독도《명유권》을 주장하는 집회를 로폭적으로 벌려 현은 현은 독도문제를 전제로 말아보는 《명도》주권대결기 《최초정식》이라는 부서를 새로 내오는 망동을 부리고있다.

일본반동들의 명도강탈야망은 현의 사무원이주에들은 도쿄한복판에서 독도《명유권》을 주장하는 집회를 로폭적으로 벌려 현은 현은 독도문제를 전제로 말아보는 《명도》주권대결기 《최초정식》이라는 부서를 새로 내오는 망동을 부리고있다.

을 승인하는것으로서 사실상 독도에 대한 조선의 명유권을 인정하는 일본정부의 공식확인서와 같은것이다.

이 문건들은 결국 국경을 넘어 외국 명도인 조선의 출생도와 독도에로의 항행을 《의용》한다는 증거이며 그것은 이 섬들에 대한 조선의 명유권인정을 전제로 한것이었다.

제2차 세계대전직후 일본은 제망과 함께 독도가 저들의 섬이 아니라는것을 국제사회에 공식적으로 인정하였다.

일본의 명도화장을 위해 미국과 영국이 작성한 지도들에도 독도는 조선의 명도 명백히 표기되어있다.

독도강탈행동은 일본이 조선민족앞에 덧씌운것은 피약공의 가장 큰 죄악의 하나이다.

일본은 지난 세계 우리 나라를 강점하고 조선인민에게 해아할수 없는 불행과 고통, 재난을 강요하고도 그에 대한 사죄, 배상을 한사코 회피하고있는 천년수적이다.

이러한 일본이 오늘날 우리 나라의 신성한 령토를 넘겨다면서 제침의 기회만을 노시킴만 노리고있다.

일본반동들은 헛된 망상에 사로잡혀 제침의 계몽을 찾듯이 아니라 피악에 한 력사에 대한 항구적 사죄하고 배상할 결단을 내리는것이 좋을것이다. 그것만이 일본이 살길이다.

【조선중앙통신】

당파싸움으로 혼란스러운 미국정계

트럼프행정부는 그들대로 이에 앙심을 품고 오바마가 고심을 풀이 마련한 정치적유산들을 하나씩하나씩 오물물속에 처박아넣었다. 집권하자마자 건강보충제허위광고와 환형제양정제발원지정에서의 탈퇴를 선언한 현 행정부는 계속하여 모든 피난민들의 미국입국을 120일동안 금지하고 수리아인민들의 수용을 무기한 중단하며 이란과 이라크 등 7개 나라 국적자를 제외한 미국입국을 90일동안 금지하는 행정명령을 내렸다. 이것은 2014년 1월 오바마가 특별연설을 통해 발표하였던 이민제도개혁을 위한 행정명령과는 상반되는 것이다. 행정명령은 미국헌법이 대통령에게 부여한 권한에 속하는것이므로 국회의 승인이없이도 시행될수 있다.

부이통이 미진 오바마제거리려는 이런 대동행보보판을 내세워 《신앙과 종교에 따라 사립학교를 차별하는것을 반대한다》고 하면서 트럼프를 공개적으로 비난해놓았다. 전직대통령들이 헌정대통령을 비판하지 않던 관례를 깬 이러한 사태를 두 미국내에서 가까운 수개월만에 트럼프와 오바마사이에 격렬한 충돌이 일어났기 될것이라는 우려의 목소리들이 울려나오는것이 민중들이 추구하고있는 목적이이다.

그러나 더 큰 위험은 다른데 있다. 문제는 이번 사건이 미국정계내에서 현 행정부를 목표로 정치적적수들이 벌리고있는 본격적인 비난, 압박공격의 직접적인 결과이며 그 시작에 불과하다는것이다. 주요적 수들은 두말할 없이 민주당세력이다.

민주당은 오바마행정부시거 대내외정책에서 모두 실책하였을뿐 아니라 공화당원의 력적용에서도 패하였다. 국회 상하 양원에서 민주당도 공화당에 패하였고 대통령선거에서도 정적인결과에 직면하는 인물이 되고있었다. 트럼프에게 저들이 유력후보로 내세운 힐러리 클린턴이 밀리우는 수치까지 당하였다.

어떻게 하면 패배를 당할수 있었는가에 대해 고심하던 민주당세력은 대통령선거기간에 있던 민주당정국위원회와 힐러리클린턴시거운동본부에 대한 해경사건의 배후에 로씨야가 있다고 만들어내면서 정보관들을 내세워 증거자료를 현속 내놓으며 여론을 돌리게 만들어놓았다. 공화당에 대한 공세를 강화함으로써 저들에게 불리한 정국을 위기부여보자는것이 민주당이 추구하고있는 목적이이다.

얼마전 트럼프정부에서 국가안보보좌관

로 있던 마이클 풀먼이 임명된 것 한달도 못되어 그 자리에서 밀려나는 일이 벌어졌다. 로씨야와 내통하였다는 의혹이 강하게 제기되었기때문이다.

전해내에 의하면 그는 지난해 미국에서 대통령선거전에 한창 일 때 트럼프의 측근으로 활약하면서 미국주에 로씨야의사와 관련하여 접촉하여 로씨야에게 문제 등을 논의하였다고 한다.

후에 미국정국위원회가 싸이더공간을 통한 로씨야의 미국대통령선거개입사건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이것을 확인하고 그에게 해명을 요구하자 대답은 없는 한의만 없다고 거짓말을 하였다고 한다. 풀먼이 부대통령에게 거짓말을 하는것을 보면 로씨야의 협박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했었다고 지적되고 있다. 1월 시거성이 백악관에 접근한 사실까지 보도로 전해져 미국정계를 술렁거리게 하였다. 결국 풀먼은 본분한 여론의 압박에 못이겨 단행보좌관의 오명을 뒤집어쓰고 사임하고말았다.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은 대통령 최측근으로서 미국의 외교안보정책을 수립하고 추진해나가는것이 무시할수 없는 영향력을 행사하고있다. 이런 인물이 사임할것은 하여 트럼프행정부의 정책수행은 시거부리 혼란에 빠질 위험에 직면

민중적인 공세를 들어내고있다. 현 계 민주당은 이전 트럼프선거대북명정부와 선거전명의교묘한 등 트럼프의 여러 측근들도 로씨야와 비법적인 협력을 가지고있을수 있다는 전국적인 여론론을 퍼뜨리고 있다. 여러 정보기관들이 이에 대해 경고하고있다. 공화당의 일부 인물들까지도 여기에 동조해나가는 형편이다. 트럼프는 이에 대해 말도 안되는 소리로 대꾸하고 있다. 공화당원 몇몇 미국인론과 정보기관들을 향해 강한 불만을 표시하고있다. 지어 자기에 대해 비평을 일삼는 미국내의 5개 언론들을 향해 《국민의 적》이라는 부언까지 내걸었다.

적지 않은 정세분석가들은 단 일 사건조사자 민주당측에 유리하게 진행된 경우 제 2, 제3의 흥인이 출현할것을 염두에두고 나아가서 트럼프대통령의 탄핵까지도 제기할수 있다고 평가하고 있다.

앞으로 일이 어떻게 벌어져지는가는 두고보아야 할 일이다. 그러나 명백한것은 현재 벌어지고있는 공화당과 민주당사이의 치열한 당파싸움속에서도 앞으로 미국에서 총선거인 사건들이 계속 발생할것을 미연에 방지하는 것이다. 이것은 그대로 미국정계의 지극적인 혼란으로 이어지게 될것이다.

본사기자 안철권